

전 남

여수산단 메탄올 이송관 손상 폭발위험

지하매설관 정밀 진단서 드러나  
산업단지공단 원인 파악도 안해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의 원료 이송관 일부가 손상된 채 방치되고 있으나, 관계사와 관련기관이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물의를 안고 있다.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등에 따르면 여수 남동발전 정문에서 20m 떨어진 곳에 매설된 G사와 J사 등 5개사 원료 이송관 중 일부가 플러에틸렌 코팅막(이하 PE코팅막)이 손상된 사실이 지난달 24일 발견됐다.

이는 J사가 여수산단 최초로 실시한 지하매설 원료 이송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드러났다. 손상된 배관은 지난 1996년 10월 매설된 메탄올 이송관으로 10cm 정도 PE 코팅 막이 찢긴 상태다.

관계사들은 손상 배관 상부에 전신주가 설치돼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본체의 전신주는 한국전력 여수지사가 지난 2004년 5월 전신주 보강 공사를 하면서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굴착과정에서 배관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관계사, 한편은 사고 발생 10여 일이 넘도록 사고원인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사는 PE코팅막을 부직포 정도로 이해하면서 "약간 손상된 상태로 아직 가스가 새지 않는 상태라 별 이상 없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고 발생 10 일째인 2일에서야 한전에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상태다. 한전도 "당시 전신주 공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사들과 배관 매설을 협의한 전공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관계사들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배관 부식을 막기 위한 PE코팅막이 손상될 경우 배관수명 단축은 물론 국부 부식에 따른 배관 파손으로 이어져 연세 연쇄 폭발사고가 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하배관 소유사, 한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신주와 맞물린 배관에 대한 즉각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산단 관계사는 "코팅 막이 찢긴 것은 배관이 낡았거나 열침 등의 부종격이 작용했다는 증거"라며 "문제는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손상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투기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 해당산업단지는 2.92km 규모로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천20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땅심엔 퇴비가 최고"

최근 강진군 공동면 들녘에서 농민들이 보리를 심기 위해 퇴비를 뿌리고 논갈이를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합평에 안중근 동상 세운다

상해임시정부 청사 앞에 건립  
서거 100주년 2010년 3월 완료

합평군에 재현된 상해임시정부 청사 앞에 안중근 장군 동상이 세워진다. 합평군은 최근 '안중근 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안중근 장군 동상건립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합평군 신광면 합평리 상해임시정부 청사 앞에 안 장군 동상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평군은 안 장군 서거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10년 3월 26일 이전에 동상 건립을 완료하고 서거일에 맞춰 동상 제막식을 할 예정이다.

군은 중국 하얼빈 시내에 세워졌다가 철거돼 국회 헌정기념관 앞 잔디광장에 임시 전시 중이던 안중근 동상을 유치하려다가 최근 경기 부천시에서 무산되자 이번에 동상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합평군은 그동안 합평 출신으로 호남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을 지난 2003년 건립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일본군강점기 항일운동의 본거지였던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그대로 재현했다.

또 지난해 8월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와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전남에서 최초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진적인 보훈정책을 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시정부 청사,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등과 함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중근 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동상을 유치하려다가 최근 경기 부천시에서 무산되자 이번에 동상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합평군은 그동안 합평 출신으로 호남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을 지난 2003년 건립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일본군강점기 항일운동의 본거지였던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그대로 재현했다.

또 지난해 8월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와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전남에서 최초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진적인 보훈정책을 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시정부 청사,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등과 함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중근 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흥군은 지난 2000년 12월 기본설계와 노선협의 단계에서부터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수도 없이 건의해 왔으나 그때마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술적인 문제로 고흥군 관내에는 IC설치가 불가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고흥군은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의 IC를 분석해 여건이 비슷한 곳에 설치된 IC를 찾아내 이를 근거로 용역회사와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함천교 지점에 IC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동부취재본부=주국중기자 gju@

목포~광양고속도 고흥 나들목 확정

276억 들여 뱀목제 지점 순천방향 설치

고흥군민의 숙원이던 목포~광양 간고속도로 고흥 나들목(IC)이 최종 확정됐다.

4일 고흥군에 따르면 목포~광양 간고속도로 건설공사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초 설계에 정기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외국 및 다문화가족 검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안내와 홍보 효율성 확보,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로 부담기로 하고 고흥군이 제안했던 뱀목제(한천교)지점에 순천방향으로 설치된다.

또한 군비 부담금 12억원은 고흥군의 재정사정을 감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2~3년으로 나누어 분담하도록 했다.

고흥군이 지난 9년여 동안 풀지 못했던 IC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정부 설득활동이



"편백나무 숲 거닐어 보세요"

고흥군 팔영산에 휴양 산책로 조성

고흥군은 팔영산 도유림에 조성된 سنگ지구 편백림 52ha에 6km의 휴양 산책로와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했다. (사진) 또 휴양 산책로 곳곳에 쉴 수 있는 휴식을 벤치와 탁자를 설치해 개방했다.

편백림 지구는 1981년 전주제지(현 한솔제지)가 심은 것으로,

15만6천본의 편백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편백나무는 피톤치드 성분을 뿜어내 산림욕을 즐기는 행락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오일을 제공하기도 한다.

동부취재본부=주국중기자 gju@

순천대, 약대 유치 본격화

정부의 약학대학 설립 승인이 임박해지면서 전남권 대학들의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대학교가 목포대, 무안 초당대, 나주 동신대에 이어 약학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순천대는 지난 3일 허신형 순천대

약학대학 설립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장만채 순천대 총장, 서영권 순천대 기획처장, 박영택 약사회장, 임상규 순천대발달전위원장, 박홍수 순천대 경영행정대학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 현판식을 가졌다.

동부취재본부=허태민기자 haggia@

장흥 해당산단 조성 13.96km<sup>2</sup>

토지거래 허가구역서 해제

전남도는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에 대해 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허가구역 해제지역은 13.96km<sup>2</sup>로 장흥군 장흥읍 해당·삼산·금산·관악·상리와 향양리 중 농어촌도로 102호선 북동 측 지역과 축내리 중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토지보상이 90%까지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토지 투기 우려가 해소돼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만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애초 허가구역 지정기간(2011년 1월22일)을 무려 1년 2개월

이나 남겨놓고 조속히 해제했다.

전남도는 허가구역 해제로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투기 동향을 중점 감시해 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같은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투기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 해당산업단지는 2.92km 규모로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천20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합평 다문화센터와 협약  
건보공단 합평·영광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합평·영광지사(의사장 김대섭)는 최근 합평출장소 회의실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검진대상자의 수검참여와 건강증진 제고를 위해 합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소장 정점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합평·영광지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발적 검진참여를 유도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보건소, 지역봉사단체를 비롯해 학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외국 및 다문화가족 검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안내와 홍보 효율성 확보,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H.P 010-4608-3700.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OMECON. Title: 태양광발전소 부지 금구함. Contact: 062-233-2222, H-P: 010-3616-8698. Lists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正心 正視 正行. Contact: 062)431-2834, (H.P) 010-6460-2834.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